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에 최선

도교육청, 오늘 계약담당자 1600여명 대상 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2019 계약업무 담당자 연수를 추진한다. 오늘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도교육청

각과·직속기관·지역교육청(각과) 계약담당자, 공립단설유치원, 공·사립 각급학교 행정실장 및 계약담당자 등 총 1,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19 물품계약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계약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계약제도 안내 ▲최근 계약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한 이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중중장애인·사회적기업 제품 등 포함)의 이해 ▲계약업무 관련 지침 안내 등이 이어진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렴계약제도를 정착시키고 최근 개정 계약 법령 이해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며 “중중장애인·사회적기업 등 지역 업체 공공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중국 교고생 초청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북대학교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입학 유도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교고생과 교사 등을 대략 10명, 'Feeling CENU'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은 중국 천진남개상우학교 학생 12명과 교사를 초청,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한국문화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이뤄진 방문단은 오전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기초 회화 등을 공부하고, 오후에는 전주 한옥마을과 임실 필봉문화촌, 무주 태권도원 등을 찾아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한다.

또한 이들은 전북대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 시설을 직접 돌아보며 한국 유학에 대해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다.

운영속 국제협력본부장은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학생들을 초청해 대학의 우수 인프라를 경험하게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의 우수성도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전북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줘 추후 입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국제협력본부는 중국 고등학생 내 한국 유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에서 우리대학 홍보 및 입학설명회,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을 거쳐 학위 과정에 입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주간 국제학생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동계 멘토링 재능봉사 캠프를 진행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생학

전주대, 국제학생 한국어지도 멘토링 재능봉사 캠프 운영

전주대 사범대학 및 한국어문화 학생들은 학기와 방학마다 국제학생들의 한국어 공부와 성공적인 한국 생활을 돕고 있다. 전주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5주간 국제학생서비스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동계 멘토링 재능봉사 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심과 배려, 사랑과 재능 나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는 이번으로 4회째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유학 생활 초기 국제학생

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 및 한국어문화학과 재학생 30명이 멘토로 지원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제 학생과 멘토-멘티를 맺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국제학생의 한국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재학생 멘토 성태경(한국어문화과 3년) 학생은 “국제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를 지원해주면서 정서적으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갖고 있

는 재능으로 국제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국제학생 멘티 장철(한국어연수 2급/중국) 학생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한국 친구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한국어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는 2019 국제학생중점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부하는·건강한·내 집 같은 유학생활’을 지원하며 세계화 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봉사활동 활성화 통해 도덕성 함양”

전주교대,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 우수사례 선정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발전협의회(회장 최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8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에 우수사례 학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의 고등교육 경쟁력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하는 교육부 국가재정 지원사업으로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교대는 ▲고등교육역량 및 공공성 강화 ▲대학연구역량강화 ▲지역사회 발전기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대학자율사업 총 4개 영역 11개 세부과제를 운영하며, 현재는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은 전국 국립대학교 39개교를 대상으로 1차년도 사업에 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충남대학교에서 주관하며, 오는 31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성과포럼을 위한 우수사례는 사업의 우수성 및 성과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각 권역별

로 자체 및 상호평가를 실시해 선정한다. 본교가 포함된 호남권역에서는 9개 대학 중 4개 학교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주교육대학교 우수사례는 대학자율사업 영역의 ‘지역사회 기반 봉사활동의 활성화’ 과제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인성 및 도덕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년도에는 ▲소규모 학교 원격교육봉사시스템 구축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MOU 체결 ▲농촌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선정 과제의 총괄자인 윤리교육과 김성현 교수는 본교 학생들이 대상으로 꾸준한 농촌봉사활동, 교과 연계감리, 논문 게재 등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과포럼 당일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영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성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육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애써 달라”고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4차산업 기술로 재난현장 통제능력 향상

전주대 김동현 교수, 소방안전기술 R&D 우수연구과제 선정

전주대 김동현 교수(소방안전공학과)가 지난 2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소방청 주관 2019 신규 R&D 사업 설명회 및 소방 우수성과 발표회에서 소방안전기술 R&D 우수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되며 소방청장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에 걸쳐 소방청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3.2억원을 수주해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을 개발했다.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은 소방드론 및 실내 소방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의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광역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 능력을 향상시키는 첨단기술이다.

또한, 광역 영상 정보 취득과 실내 소방대원의 설문 조사 결과(실시 교육동태 설문조사)를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도서관 체험 활동과 책을 통해서 독서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과가 탁월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발명진흥회장 표창과 함께 피츠버그국제발명대회 금상과 조지워싱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김동현 교수는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구조요원의 생존성 보장에 보탬이 되도록 이번 연구를 수행했다”라며 “앞으로 전주대에 방재문화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해 방재분야 특화연구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현 교수는 소방·방재 드론 분야의 특화된 연구 실적을 기반으로 전주대 드론스쿨을 설치하고, 소방관 및 소방안전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전문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임실공공도서관, '부모와 함께하는 도서관학교' 운영

임실공공도서관이 '부모와 함께하는 방학중 도서관학교' 참여 가족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의 독서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초등학교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2월 21일부터 4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 순으로 15가족을 선정하게 된다. 도서관학교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모는 자율 독서와 독서교육 특강으로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녀는 올바른 책 읽기와 독후활동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독서 토론과 발표 등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임실공공도서관 관계자는 “임실지역 학부모들의 설문 조사 결과(임실 교육공동체 설문조사)를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도서관 체험 활동과 책을 통해서 독서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